



“인도네시아,
4월까지 코로나19 최대 7만1천명 감염 가능성”

MONTHLY **KOFA**

코파의

칭 호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Vol. **67**
2020/04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KOFA... 전 회원사에 마스크 지원



제인니한국신발협회(회장:이종윤)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방으로 각 회원사에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

배부는 배부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즉시 배송할 계획이며 배송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우편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제인니한국신발협회는 지구촌 전체를 위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각 기업별 많은 어려움과 점점 다가오는 불황으로 고심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각 기업별 사전에 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체방역 실시 등 다양한 자구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경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인도네시아 폭동사태와 수 많은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으로 본다.

이번 각 회원사에 배부되는 마스크는 비록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지만 제인니한국신발협회의회에서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 다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실시한다.

제인니한국신발협회는 약 200여 회원사로 창립 11주년을 넘긴 탄탄하고 모범적인 직능단체로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를 선도하고 있고 제인니한국봉제협회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니 코로나19 ...자카르타 비상사태 4월 19일까지

확진자 1천155명으로 증가...드라이브 스루 검진소도 가동 "보호장비 보장 안 하면 치료중단" ...韓사업가 방호복 1만장 기부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109명 추가돼 총 1천15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102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8.83%에 이른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아흐마드 유리 안토는 브리핑에서 "지역 사회에서 근접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집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공수한 신속 진단키트가 전국에 배포돼 대량 검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까지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매일 100명 넘게 증가했다.

자카르타 외곽 찌까랑의 위바와 목띠 스타디움에는 전날부

터 한국처럼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코로나19 검진소가 가동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한국 정부와 여러 기업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의 외교 고위당국자는 117개 국가가 한국에 방역물품 공급을 요청했다며 미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네시아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의료협회(ID)와 치과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진의 보호장비 가용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의료진은 방호복과 마스크, 장갑 등 기본 보호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최소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중국에서 15만여개의 보호장비를 공수해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또, 한인 봉제 업체들이 한국에서 원단을 가져와 현지에서 생산, 한국에 납품하는 방호복 가운데 50만장을 구매하기로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계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0만장의 방호복 가운데 1차로 10만5천장을 가져다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이와 별도로 한인 기업가가 방호복 1만벌을 구매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부했다고 제인니한국 봉제협회(KOGA)가 밝혔다.

수도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날 '비상사태' 대응 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22일~4월 5일이었던 비상사태 대응 기간이 4월 19일까지 늘어났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식료품 구입과 병원 방문



▲ 이미지=조코위 대통령 페이스북 등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재택근무 전환과 외출자제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봉쇄(lockdown) 불필요' 입장을 고수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격리 방식'을 채택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이날 "봉쇄를 하지는 않지만, 지역 격리를 시행하겠다"며 "사람들은 지역 격리를 봉쇄로 보는데, 이는 사실 다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내용 면에서는 '지역별 봉쇄'와 다름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국립대(U)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 외출 금지를 엄격히 명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한 일부 지역과 지방에 국지적 봉쇄조치가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지면, 시민들 피해는 물론 최전방의 의료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방역물품 지원요청...강경화 "최대한 지원"



▲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인도네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제3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8.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및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레트노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뛰어난 진단 검사 능력 등 방역 역량을 높여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이어 레트노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방역 물품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에 우려를 같이 하고 방역 물품 등은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공급·지원 고려 대상 국가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신남방정책 핵심의 하나'라며 인도네시아를 거론한 바 있다.

[연합뉴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인도네시아, 4월까지 코로나19 최대 7만1천명 감염 가능성”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말까지 최대 7만1천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질병 감시와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에이크만-옥스퍼드 임상연구단(EOCRU)’은 등비수열법을 이용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를 예측했다.

연구팀은 확진자 수가 두 배가 되는 시간(배가시간·doubling time)이 이탈리아와 이란은 5일과 7일이고, 한국과 중국은 13일과 33일이었던 반면 인도네시아는 ‘3일’로 매우 짧은 점을 주목했다.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수는 3월 17일 172명에서 사흘 뒤인 20일 369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연구팀은 배가시간과 등비수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4월 말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1천명에서 최대 7만1천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배가시간은 바이러스의 감염성, 코로나19 검사 기

4명 확진·사망 48명으로 치명률 9.3%...이탈리아보다 높아 의사 6명 감염돼 사망...르바란 귀향 대중교통 이용 금지 검토



모, 개입의 효과에 달려 있다”며 “7만1천명 감염은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배가시간을 줄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2일 첫 발표 후 514명까지 늘었고, 사망자가 48명

이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9.33%로 이탈리아의 9.26%보다도 높다.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5만9천138명, 사망자는 5천476명이다. 한국의 치명률은 1.17%이다. 수도 자카르타는 307명의 확진

자와 29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는 20일부터 혈청(항체)을 이용한 신속검사법으로 대량 검사를 시작했기에 확진자가 계속 늘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와 근접 접촉자 등 60만명~70만명의 우선 검사 대상자가 있고, 이들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야흐마드 유리안토는 “중국에서 수입한 15만개의 신속검사 키트가 인도네시아에 1차로 도착해 전역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 100만개의 키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지정 병원에는 환자들이 물리고 있지만, 쉽게 검사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ID)는 6명의 의사가 코로나19 환자들

을 치료하다 감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인도 19명으로 늘었다.

19명 가운데 1명은 숨지고, 1명은 완치됐으며 나머지 17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 정박한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루미노사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크루즈선에도 60명 안팎의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타고 있다고 현지 매들은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홍콩 크루즈선 ‘월드드림호’에서 자국민 선원 각각 69명과 188명을 귀국시켜 무인도에서 14일간 격리 관찰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나이트클럽, 펍, 노래방, 선술집, 스파, 영화관, 당구장 등 사업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호소문 형태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민들에게 몇 주간 집에 머물 것을 권유하고, 민간 기업에 재택근무 전환을 요청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객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부터 자카르타 도심 도로와 쇼핑몰 등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날 통근 열차가 여전히 붐비는 등 비상사태의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라마단 종료 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드 알 피뜨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향 방문(무딕)을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제화협회, 코로나19로 1분기 수출 20% 이상 감소 예상



인도네시아 제화협회(Aprisindo)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제화 수출량

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언론 끈판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화협회의 피르만 상무이사는 “2월에서 3월까지 제화 수출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내내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르만 상무이사는 이어 “중국산 원자재 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수출 국가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수출 자체가 어려워 졌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 제화공장들은 아직 가동 중으로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작업장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LIGHT+
The Solutions of LED

인니 현지 생산
LED 조명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COFINDO, ISO9001 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펙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귀국 항공편 좀 마련해주세요” ...

아시아 곳곳서 교민들 발동동

- 1천명 이상 귀국 희망 인도 · 뉴질랜드, 한인회가 특별기 수요 조사
- 태국발 인천행 여객기 만석... 미얀마 · 베트남 다낭서 전세기 뜬다

아시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앞다퉀 국가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하늘길이 속속 끊기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의 열악한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서둘러 귀국하려는 한국 교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에서는 교민 1만여명 가운데 1천명 이상이 조기 귀국을 희망하며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특별기를 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80명씩 늘고 있는 데다 봉쇄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도 26일 누적 확진자가 1천102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역 봉쇄령이 발동된 남부 신드주(州)의 카라치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귀국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한 방글라데시에서도 한인회가 귀국 특별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이날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27일 새벽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이 동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주말 방콕 일부 봉쇄에 이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귀국하려는 교민과 관광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동제한 명령이 내달 14일까지 연장되자 귀국 희망자가 늘어 한인회가 교민을 상대로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으나 각료들에게 “조문오지 말고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국적 항공사인 라오항공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인천을 오가는 여객기를 매주 1차례, 또는 격주로 1차례 운항하기로 했다.

교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나왔다.

베트남 중부 다낭한인회는 에어서울과 계약, 내달 7일 190명을 태울 수 있는 다낭발 인천행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다. 다낭한인회는 예약자가 많아 대기 번호표를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내달 21일 제2차 귀국 전세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얀마에서도 대한항공이 오는 31일 인천행 특별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미얀마 한인회는 최근 3일간 귀국 수요 조사를 한 결과 600명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에서도 26일 전국 봉쇄령이 내려지고 한국행 직항 노선이 끊기자 교민들이 초조해졌다. 현지 공관과 한인회가 교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최소 1천400명 이상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경우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임시 항공편 운항을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바이러스가 바꾸는 세상

애먼 박쥐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원인이야 어찌 되었건 말 그대로 들불처럼 번지다가 지역, 국가를 벗어나 전 세계로 번지는 팬데믹(pandemic)이 될까 걱정이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수라장을 팬데모니움(pandemonium)이라 한다. 두렵다. 한 지역에만 유행하는 역병, 엔데믹(endemic)이 더 널리 퍼지면 에피데믹(epidemic)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에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열이 서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큰일이 났다. 방역과 치료를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염원과 차단이니 바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라든가 막는 일이다. 인간사에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다. 거리를 재는 척도도 센티, 인치, 피트, 야드, 미터가 다 다르듯이 우리 신체를 이용한 거리도 많다. 지척(咫尺)이 있고 옆어지면 코 닿을 데가 있다. 반팔 간격, 한팔 간격, 양팔 간격에는 익숙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팔 길이(arm's length)를 중요하게 다룬다. 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들 간에 사익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암즈렌스 트랜잭션이라 한다. 가족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에서는 중여나 편법 거래가 일어나기 쉬워 특히 세법에서 볼 때 부당한 것이 된다. 이런 팔 길이 보다 더 가까워져 문제가 되는 거리는 '서로 팔짱을 낀(arm-in-arm)' 거리다.

인터넷이 보급되어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던 90년대 중반에 나는 학교 홈페이지에 내 개인의 페이지를 만들어 붙였다. 소위ac.kr/~kjcho.html의 형식이였다. 조작하기는 했지만 강의 과목마다 파일을 올려두었다. 텍스트 파일은 학생들이 들고 필기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고 녹음 파일은 설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힘들기

는 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언젠가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앞서 갔나보다. 그동안 정보 기술이 발달하여 사이버 강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이 생겨났다. 강의안을 체계적으로 올리고 출석을 점검하며 과제를 받아 평가하고 퀴즈와 시험을 칠 수 있고 질의응답도 하게 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 왔다. 강의용 동영상 만들 때는 힘이 들지만 만들고 나면 여러 번 써 먹을 수 있기에 좋았다. 자꾸 녹화하다보면 요령이 생긴다. 그런 요령을 체득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2000년대에 국제학술회의를 흥내 내며 한미일간에 화상회의를 하였다. 기술문제로 중국 교수들은 초청하였고, 화상회의 사이트에 들어가 어카운트를 몇 개 받아 불편하지만 같은 시간에 접속하자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했다. 웹캠으로 보면서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에서 보니 불만했다. 그런 일들은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수백 명이 동시에 자료를 공유하며 협업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상에서 개인의 PC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리모트뷰' 서비스는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문가가 내 PC를 자기 것처럼 살펴보고, 고치고, 쓰기 적절하게 설정해 준다.

재택근무를 시키려면 집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보안이 유지된 사내 망이나 사내 업무 시스템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에 사용하던 다양한 도구들을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방법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사내의 데이터센터나



조기조 교수

클라우드 서버에 만든 가상의 데스크톱에 원격접속을 돕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기술도 있다.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프로그램이 있다. 다른 장치로의 복사나 저장을 막고, 지정된 기기에서만 열리게 할 수 있어 복사해 가도 쓸모없게 만드는 등 유용한 정보 보호 기술이다. 사원들이 즐겨 써서 익숙한 각종 기기로 회사와, 집, 이동 중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란 기술도 발달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화상회의와 사이버 강의는 필수적이다. 기술도 뒷받침이 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은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 신중페렴에 고맙다고 해야 하나? 5G 시대에 이동성이 생명인데 굳이 출근하고 등교하라는 법은 안 고치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 융통성이 없다. 뒷북도 나팔도 치고 불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 당장에!

조기조(曹基祚 Kijo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해외서 격리비 개인부담 추세 확산... 국비지원 한국입장 바뀌나

외교부 “상황 많이 달라져...좀 더 지켜보며 기본입장 판단”
중국 대부분 지역·미국 하와이·필리핀 세부 등 격리 시 ‘개인 부담’



▲ 유럽발 입국자 증상없어도 자가격리 의무화(PG)[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는 국가 중 그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은 격리 비용은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

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방침도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추세와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의

기본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초기에 광저우에서 그렇게 했다가 우리 항으로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중국도 자부담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 광저우 케이스는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 측도 금방 수긍을 하고 시정을 했던 그런 상황과는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는 중국 26개 지역 대다수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베이징시에서 지난 16일 이런 조치를 하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들로 빠르게 확산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하와이는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데,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필리핀 세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는데, 거주지가 없어 호텔에서 묵어야 하면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브루나이와 브룬디, 에티오피아, 베냉 등도 격리 시 자부담 원칙을 발표했다.

한국은 격리비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 비용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

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제 기본원칙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치가 미국발 입국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추가조치에 대해) 미국 쪽에 사전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의에서도 일차적으로 방역 당국의 위험도 판단과 조치 필요성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흐름은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유효하다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플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세금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세금문제(부가세 환급, 세금 경감) 대행

비밀 보장과 깔끔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PT. JOAKIM INDONESIA CONSULTING

Menara Jamsostek Tower N Lt.3, Jl.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상담문의 : 0813-1761-9876 (사무장)

한국 신발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유는

198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 신발·봉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대거 몰려간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임금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기 1천500명 정도의 현지 한인 수가 1990년대 초에는 1만명에 육박한다. 1990년 전후로 인도네시아 한 인공동체는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큰 변혁기를 맞았고, 인도네시아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 9월 출간을 목표로 집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가제) 집필진은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KOGA)와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KOFA)의 주요 인사들을 각각 만나, 각 업종의 과거와 현재의 영욕과 성쇠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2월 13일 땅그랑에 있는 KOFA 사무실 열린 KOFA와의 간담회에는 이종윤 회장(SM 사장), 하연수 고문(서린 사장), 강호성 수석부회장(ACMI 사장), 윤범수 부회장(아시아케미칼 사장), 박길용 사무총장(한영 법인장), 강재홍 부사무총장(실크로드 디자인연구소) 등, 한인사편찬위원회에서는 신성철과 조연숙 한인사 집필위원이 참석했다.

30년이 넘게 인도네시아 신발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하연수 고문은 "1980년대 후반기에 한상기업인 코린도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스포츠화 제조업체인 '가루다인



▲ KOFA 회의실에서 한인사 집필위원과 KOFA 주요인사들이 한국기업 진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2.13. [데일리인도네시아]

다와' (브랜드명 이글)를 가동했다"며 "우리 신발업체들이 1980년대 후반기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할 시점에 Garuda인도와는 해외 이전을 앞둔 한국 신발업체에 표준이 됐다고 회고했다.

초창기부터 Garuda인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하 고문은 "1980년대 한국 스포츠화 제조업이 세계 패권을 잡았으나, 이제는 타이완에 넘어갔다"며 "인도네시아에서 그 영광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에 한국계 신발업체들은 OEM(주문자 제조) 방식으로 수출 중심의 생산을 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안고 자체 내수 브랜드를 키우기도 했다. Garuda인도와는 '이글(Eagle)', 동조인도네시아는 '스포텍(Spotec)' 그리고 태화인도네시아는 랑포드(Langford) 등이 그것이다.

윤범수 부회장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공장을 가동할 때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작업공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표준설명서가 없어서 현지 직원과 갈등과 마찰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종윤 회장은 "최근 주요 스포츠화 바이어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넘어오고 있다"며 "향후 1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스포츠화 산업이 활황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인사 편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큰 줄기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사를 집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오랜 기간 현지에서 기업경영 경험이 풍부한 한인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산디아가 전 자카르타 주지사, 일당 근로자 위한 '복지' 강조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일당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자카르타 행정부에 촉구했다.

23일자 현지 매체 뎀뽀에 따르면, 산디아가 전 주지사는 22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는 일당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긴급 상황에서 일당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인도네시아 대학의 경제학자 파이살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와 구

매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정부의 부양책이나 인센티브가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세 번째 경제 부양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중 하나는 산디아가 전 주지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자카르타경제신문

TOILON PT. TOILON INSU PANEL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보 까라와치 루꼬 피남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평가식당앞 상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韓확진자 0명...조건 갖춰야 임시항공편”

대사관 언론 간담회...” 6~7명 음성 판정받았고 1명 병원 격리 중”
교민·주재원 귀국 움직임...한인 업체 제조 방호복 50만장 인니 납품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4일 한국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고, 6~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에서 온 한국인 여행자 1명이 의심 증상으로 자카르타의 병원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사관은 이날 김창범 대사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언론 간담회를 열어 한국 교민·주재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개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79명, 사망자는 49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8.46%다.

발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영국인 여성과 프랑스인 남성이 숨지는 등 외국인 확진자가 있으나,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창범 대사는 “한국인 확

진자 발생 시 인도네시아 보건부를 통해 인적 사항을 받을 것”이라며 “사태 발생 이인삼각의 자세로 24시간 핫라인 가동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당국의 한국인 확진자 통보는 없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교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대사관의 방침이다.

현재 자카르타 병원에 격리 중인 30대 후반 한국인 여행자 1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 교민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받고, 코로나19 전담 지정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아야 한다.

1차 의료기관 검사 비용은 자부담이며, 전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대사관은 또 임시항공편(전세기) 운항과 관련한 질문이 많이라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임시항공편은 ▲ 확진자 급증 ▲ 열악한 의료환경 ▲ 귀국 수단 차단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띄울 수 있다.

다만, 항공사의 권한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탑승이 불가하다.

대사관 관계자는 “귀국 지원은 대사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인천~발리 노선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운항 중이다.

호주의 경우 한국행 하늘길이 막혔기에 귀국 희망자들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와서 인천행 여객기를 이용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봉쇄(lock down)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의료체계가 한국보다 미흡하기에 최근 노약자를 중심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교민·주재원 가족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현지 의사·간호사 20여명이 감염됐으며 의사 6명이 이미 사망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방침을 따라야 하기에 한국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며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귀국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상황이 악화했을 때를 고려해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 등

을 포함해 대응 전략을 짤면 한다”며 “한인회는 마스크 8만장을 조달해 교민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로 재인도네시아 한인 봉제 업체들이 생산한 방호복 50만장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자카르타 외곽 한인 봉제 업체들은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하는 방호복 220만장의 하청을 받아 생산 중이었으며, 양국 정부의 협의로 50만장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급하게 됐다.

1차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급된 10만5천장의 방호복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에게 배포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산 진단키트·마스크 등을 대량으로 들여온 데 이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국산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검사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스리 재무 장관, 코로나19 영향 경기 부양책 제3탄 책정 중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경기 부양책 제3탄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대책으로 의료 보건 부문에 중점을 둔다.

스리 장관은 “코로나19 수습을 위해 의료 보험 부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직접 지원이 닿게 한다”며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빈곤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에 대해서는 “미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 정부 예산과 지방 정부의 교부금을 합쳐 예산 규모가 27조 루피아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리 장관은 또한 1분기(1~3



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경제 활동 정체로 4.5~4.9% 범위에 머물 것”이라고 말해 5%대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1분기는 실질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주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꿈의 신소재 그래핀 적용 ...K2, 하이킹화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혁신적인 쿠셔닝으로 오래 걸어도 발이 편안한 하이킹화 ‘플라이하이크 렉스’를 23일 출시했다.

플라이하이크 렉스는 탄소 신소재 그래핀을 국내 최초로 신발에 적용했다.

신발 중창에 고탄성 그래핀폼을 장착해 뛰어난 쿠션감과 유연성 및 향균, 탈취효과를 제공한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얇은 막 형태의 나노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신축성이 뛰어나다.

플라이하이크 렉스는 국내 그래핀 제조업체 스탠다드 그래핀의 그래핀이 적용됐다.

스탠다드그래핀은 고품질 파우더형 그래핀을 양산하는 세계적인 그래핀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발의 내피와 외피를 하나로 접착시킨 본딩 기술인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을 적용해 가벼울 뿐 아니라 방수, 투습, 건조 기능이 뛰어나 장시간 착용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한국인의 발 모양에 최적화된 퍼펙트 핏 기술로 발과 신발의 일체감을 증대시켜 오래 신어도 착용감이 뛰어나다.

마찰 저항력을 높인 이엑스그립 아웃솔로 우수한 접지력은 물론 내마모성까지 뛰어나 도심 워킹은 물론

하이킹, 등산 등 어떤 환경에서도 미끄러짐 없는 안정감을 선사한다.

가벼운 보아 다이얼 방식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남녀공용으로 색상은 블랙, 네이비, 그레이, 코랄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2만9000원이다. 신동준 K2 신발기획팀 부장은 “플라이하이크 렉스는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신소재를 적용해 최상의 착화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하이킹화”라며 “뛰어난 탄성력과 유연성으로 오래 걸어도 편안하며 도심 워킹부터 하이킹까지 봄철 야외 활동 시 다양하게 착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KYUNGWON COMPRESSOR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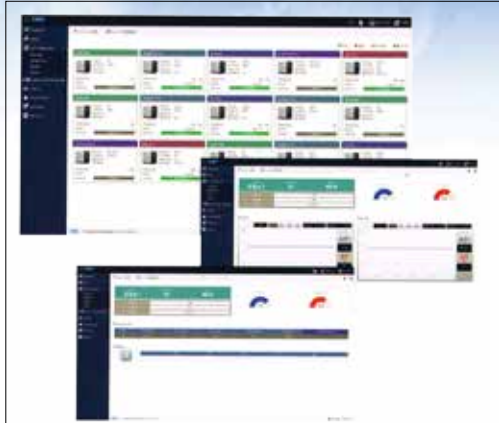
-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함 압축공기
-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 ://www.dbkw2000.com

‘코로나19 수출국 입국제한 조치’ 부산 제조업 해외영업 올 스톱



12일 기준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123개국으로 확대하면서 부산지역 제조업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각국의 조치로 지역 제조업이 받고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부산의 4대 교역 국가 중 제한적 조치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 중국, 일본, 베트남 3개국에 비즈니스가 있거나 이들 국가에 해외법인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요 제조기업 50여 곳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에 발이 묶이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단기적으로는 화상회의나 전화, 메일 등 보조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거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해외영업 전반에 걸쳐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상의는 설명했다.

피해 사례별로는 해외 사업장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지 못해 공정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았다.

중국 수리조선소에 제품을 납품하는 A사의 경우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하지 못해 감리, 제품 시운전, A/S 대응을 하지 못한 탓에 공정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

역시 현지공장에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하지만 입국제한 조치로 공정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단조제품을 생산하는 C사 역시 제품의 성격상 수출계약 때 바이어와의 기술미팅이 필수적이라 상황 장기화로 인한 계약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영업직원의 해외

출장을 모두 포기한 기업도 있었다.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D사는 사태가 심각해져 해외 출장을 모두 취소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E사 역시 입국제한 조치로 영업사원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했다.

철강선을 제조하는 F사도 1월 구정연휴로 2월로 미뤄왔던 출장계획이 코로나19로 모두 발이 묶여 신규거래가 올 스톱된 상태다.

해외 비즈니스에 발이 묶이면서 지역 제조업들은 화상회의나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거래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G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는 기존에 사용하던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 일본, 베트남의 거래선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 신발제조 공장이 있는 H사는 현지 공장과의 메일,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항공노선 운항이 축소, 중단되면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해 라인 가동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해외 전시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참가가 어렵게 되면서 해외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도 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한국인의 입국제한 조치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해외영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제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비즈니스에서 만큼은 예외적인 조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칸투칸, ‘아쿠와이어’ 앞세워 아쿠아 트레킹화 누적 판매량 100만족 돌파

칸투칸이 선보이는 아쿠아 트레킹화가 빠른 속도로 매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23일 기준 전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족을 돌파했다.

특히, FQJB88 아쿠와이어는 단일 제품으로만 누적 판매량 41만족을 기록하며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QJB88 아쿠와이어는 일상 러닝화로도 활용 가능한 것이 소비자들을 사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쿠와이어의 배수호흡을 최소화하고 파이론 및 러버솔을 적

용한 덕분이다.

칸투칸 관계자는 “측면에 메쉬 원단을 적용해 아쿠와이어 본연의 통기성도 충분히 구현했다.

3월부터 8월까지 시원한 착화가 가능하며, 활동이 많은 직업군의 경우 가을 겨울에도 신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FQJB88 아쿠와이어는 갑피 전면부를 통패턴 니트로 적용했던 전작과 달리 측면 일부분에 모노 메쉬를 적용하여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유도하고, 뜨거운 열기는 배출하여 착용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투톤 니트와 모노 메쉬가 이루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조화를 통해 디자인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이다. 신발의 갑피 상단에 무재봉 공법인 노쏘잉(NO SEWING)을 적용하여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며 무게도 278g에 불과하다.

다양한 컬러로 출시돼 선택의 폭도 넓혔다.

레드블랙, 그린블루, 아이보리, 머스터드 등 12가지 컬러로 구성된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 Poly Bag (LDPE, HDPE, PP, EVA)
- Garbage Bag
- PE Sheet (plain, embossed)
- Zipper Bag
- PVC Bag
- Shopping Bag
- OPP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미국서 중국산 신발 사라질판 ... 코로나19 타격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상점에서 중국산 신발을 찾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CNBC는 미국의 중국산 신발 수입이 10년래 최악의 1월을 경험했다면서 무역전쟁에 이어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중국산 신발 수입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맷 프리스트 미국 신발유통소매협회(FDRA)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 신발 수입이(중국으로부터) 10년여만에 최악의 1월을 보냈다”며 “수입이 15.7%나 감소했다.

이렇게 낮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 진열대에 신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많은 유통업체들이 중국 춘제(설 연휴) 전에 중국산 신발 재고를 쌓아뒀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조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개학 및 쇼핑시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FDR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팔리는 신발의 약 70%는 중국산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산 신발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마주하기 전 이미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상태다.

나이키, 언더아머, 푸마 등 많은 기업들이 꾸준히 생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CNBC는 전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1분기 매출이 최대 10억유로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4억~5억유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언더아머도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매출이 5000만~6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푸마, 투자자 대상 경고성 성명서 발표... “코로나 19 장기화되면 신속한 회복 기대하기 어려워”



▲ 독일 헤르조게나우아크에 위치한 푸마 본사

푸마가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한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일의 운동제품 종합 거대기업인 푸마는 4분기 수익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황이 단기 내에 정상화된다는 가정 하에서 작업한다면 1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같은 전망을 전면 수정했다.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른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과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푸마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 수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수량화 할 수 없는 상태다.”

푸마는 코로나 19 발생 초반만 해도 상하이를 포함한 전세계 매장을 개점한 상태였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 19 환자가 8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판매

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같은 다른 아시아 시장도 판매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푸마는 덧붙였다.

유럽에 위치한 푸마의 모든 매장도 개장한 상태지만 방문자 수는 상당히 감소했다.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매장은 이탈리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중국에 위치한 푸마의 제조공장(세계 공급량의 20%를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다. 푸마는 모든 1등급(원제품) 공급 공장을 다시 재개하고 80~100%의 생산 능력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거의 모든 2등급(소재) 공장도 재가동 중에 있다. 현재 중국의 모든 항구가 다시 문을 열었으며 지상의 운송 상황도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해외 운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사의 세계 공급망은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니다.”

출처: Footwearnews.com

아식스, 젊은 러너들을 위한 탄성 있는 신발 ‘노바블라스트’ 출시

아식스 노바블라스트(No-vablast)의 미드솔은 트랩플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으며, 이 신발을 착용한 러너들은 “걸음마다 스프링에서 도약”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아식스에 따르면, 경량의 디자인은 “에너지틱한 착용감을 느끼게 만들어 탄력적이며 재미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러너들에게 적합”하다.

아식스 독점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플라이폼 블라스트(Flytefoam Blast)는 남성용 275g, 여성용 225g으로 부드럽



러우면서도 반동력을 느낄 수 있다.

메쉬 어퍼와 박음질 표시가 없는 오버레이가 특징인 이 신발은 아식스 아하플러스

(Aharplus) 고무를 사용했으며 아식스의 기존 아웃솔보다 마모 내구력이 3배나 강력하게 디자인했다.

미세먼지 까지 제거하는 AIR 흡입방식

신개념 유해물질 제거 집진기

에어맥스 클린매트

설치장소

Clean Room/식당/병원/호텔/공장/백화점
빌딩/마트/학교/극장/터미널/관공서/방송국
공연장/박물관/발전소/전시장/은행/지하철

AIRMAX CLEAN MAT

제품 특징

1. 순간 에어 흡입방식
2. 신발의 미세먼지 차단(눈, 빗물제거가능)
3. 청결하고 깨끗한 업무환경
4. 집진기에 의해 모여진 이물질 처리 용이
5. 외부 충격에 강함

물류대차, 지게차, 주차장 차량출입구 적용가능

별도 공사 없이 시공가능
고객 원하는 치수 주문제작

매트 두께 : 20mm

관련동영상

테스트닉

0811-97-8638
korea_kjj@daum.net
kakataik ID : dragon88ind
PT.ZEUS Component Indonesia

섬유봉제업계, 대량해고 경고... 지원책 요청

당국, 전기료 가스료 인하 및 세제 혜택 추진



▲ 발릭빠반 쇼핑몰 내 H&M매장 2020.02.26. [사진: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TPT)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로 수요 감소와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 대량해고가 임박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2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yFI) 리드마 기따 위라와스파 사무총장은 23일 수입 의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국산제품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산업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서 “국산 제품이 작은 (내수)시장에 침투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없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신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TPT산업이 연간 135,000명의 노동력을 수용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전 산업 부문 연간 노동력 흡수 규모 60만 명 중 22.5%에 해당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신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의 제미 까르띠와 사스트라얏마 자 회장은 최근 열흘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했으며 현재 주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이날 화상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아직은 업체들이 가동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 변동

성이 큰 만큼 회원사들의 상태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실제로 대량해고는 딜레마(진퇴양난)다. API 회원사들은 (근로자) 대량해고를 피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API는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섬유봉제업체들 중 절반에 대해 전기료 납부를 6개월 연기하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할인요금을 제공할 것.

두 번째 방안은 산업용 가스 요금을 단위 당 미화 6달러로 인하하기로 한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 (단위: British thermal units (mmbtu))

세 번째 방안은 TPT 제품 수입허가 취득 절차를 강화하고, 원자재 수입만 보장함으로써 국산 의류제품을 보호하는 것.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근로자 대량해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산업부 화학·제약·섬유산업 부문 담당 무하맛 카얌 국장은 23일 업계가 제안한 내용 중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4월부터 가스 가격을 단위당 6달러로 인하하고, 이어 전기료를 30%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카얌 국장은 정부가 ▲완제품 의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내 생산업체가 필요

하는 원자재만 수입하도록 하도록 지원하고 ▲중간재에 대한 3년 간 보호조치를 제안했으며 ▲지난해 TPT 제품에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효한 데 이어 또 다른 보호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네 빠프리시아 수판포 API 부회장은 세금 환급 마감일을 6개월 연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초에 세금 환급 마감일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연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뉴발란스-NBA, 마케팅 파트너 계약 체결... 뉴발란스 농구 시장 진입 가속화

뉴발란스가 전미농구협회(NBA)와 공식적인 마케팅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뉴발란스는 NBA와의 다년간 계약을 통해 리그 전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세계 NBA 팬들의 구매를 강화해 농구 시장의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계약의 일환으로써, 뉴발란스는 유니폼과 팀 로고를 사용해 후원하는 선수들이 등장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NBA MVP 카와이 레너드 선수가 2019년 올스타 경기를 위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뉴발란스도 공식적으



로 농구 부문에 재진입한 것이다.” 라고 뉴발란스의 크리스 데이비스 부회장은 말했다. “1년 후, 당사는 세계 농구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카와이 레너드 선수의 최초 시그니처 농구화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올스타 경기에서 처음 선보였다.

출처: Footwearbiz.com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결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l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 AUTO PALLET FEEDING SYSTEM

작업자의 PALLET LOAD-UNLOAD 시간 단축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FLAT TYPE EMBROIDERY MACHINE

고속 CPU를 적용하여 Multi-tasking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가능



|| AUTO BOBBIN CHANGER

자동 보빈 체인저 기능으로 밑실 소진에 의한 불량 발생 차단 가능. 소진된 보빈 자동 교체로 DOWN TIME 최소화



|| 2-NEEDLES PATTERN

한대의 기계에 2개의 바늘대 운용으로 UPPER 2개의 컬러 실 사용 가능. 인원 감소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



|| IoT SYSTEM

신발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IoT SYSTEM 구축 (OEE, KPI 등)

Making _____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SunTech R&D CENTER 개발 능력

- 재봉기, 자수기 기구 설계, 구조 해석
- 재봉기, 자수기 캠 설계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컨트롤러 (CPU & OP 보드) 개발
- 패턴 재봉기, 자수기 Program 개발
- 현장 맞춤형 IoT System 개발
- 브랜드 합작 신기종 개발



SUNTECH
밀양 공장 전경



SUNTECH GLOBAL NETWORK SYSTEM

HQ & R&D CENTER & FACTORY

394-5, Sanoe-ro, Sanoe-myeon, Miryang-si, Gyeongsangnam-do

TEL +82-55-352-9304

SUNTECH CHINA FACTORY

TEL +86-755-8429-5840

H.P +86-137-1450-7030

CIKAR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ANOI BRANCH

TEL +84-24-3991-9222

H.P +84-91-494-8802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HOCHIMINH BRANCH

TEL +84-28-6682-8877

H.P +84-97-932-8610